

4·3 길을 걷다

4·3 평화기행 추천코스

- 제주시 동부권** 관덕정 → 화북 곤을동 → 4·3 평화공원 → 선혈 목시물굴 → 낙선동성터 → 북촌 너븐숭이 기념관과 애기무덤 → 다랑쉬굴과 다랑쉬 마을
- 제주시 서부권** 정뜨르비행장 → 하귀 영모원 → 빌레못굴 → 진아영 할머니 삶터 → 만병의 공동장지
- 서귀포시 서부권** 동광 잃어버린 마을과 헛묘 → 동광 큰넙게 → 대정 백조일손지모 → 알뜨르 → 첫알오름
- 서귀포시 동부권** 4·3 평화공원 → 남원 현의합장묘 → 의귀리 송령이굴 → 표선 백사장 → 성산읍 터진목 및 4·3 위령공원



43 70주년
2018 제주방문의 해



관덕정



곤을동



다랑쉬굴



큰넙게



낙선동



송령이굴



무등이왓

4·3 이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함(「4·3특별법」 제2조)
1947년 3월 1일 경찰의 발포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경찰·서청의 탄압에 대한 저항과 단선 단정 반대를 기치로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봉기한 이래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지역이 전면 개방될 때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장대간의 무력충돌로 토벌대의 진압과정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함(「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536쪽)